

부활공식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전기금 현황보고 〉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Iris ID Systems	1,300	32	박애순	500	63	오석미	1,000	94	임소라	100
2	요셉회/대건회/야고보회	1,704	33	박재영	1,500	64	오진아	2,000	95	임영자	1,000
3	주일학교	500	34	박정훈	1,500	65	오선아		96	장문국	1,000
4	유스그룹	400	35	박정희	100	66	오현아	97	장수지	1,000	
5	반석회	2,000	36	박화성	1,000	67	오용운	2,000	98	장중현	400
6	이스트브론스윅 구역	1,167	37	방숙자	400	68	오현주 (부제님)	12,000	99	전광수	1,000
7	성모회	5,000	38	배인경	500	69	우성현	1,000	100	정명숙	300
8	Vesta-Oh LLC	5,000	39	백상현	1,500	70	우영인	1,000	101	정진오	1,000
9	강식	1,200	40	백영숙	1,000	71	유병기	3,000	102	조순자	300
10	곽신규	1,000	41	변상민	1,000	72	육순재	5,000	103	조인	1,000
11	곽율리안나	200	42	변상원	1,000	73	윤석로 (부제님)	1,000	104	채희백	5,000
12	김도용	500	43	변태용	4,700	74	윤승현	1,000	105	최경하	1,000
13	김삼식	1,000	44	서경호	1,000	75	윤준희	5,000	106	최영욱	1,000
14	김성일	1,500	45	서정근	1,500	76	이광호	3,000	107	최영찬	2,000
15	김수완	5,000	46	서현주	1,000	77	이기순	500	108	최완준	1,000
16	김순옥	1,000	47	성낙순	500	78	이막동	500	109	최승웅 (부제님)	5,000
17	김안나	1,000	48	성낙철	1,000	79	이문식	1,000	110	최진호	1,000
18	김영필	2,000	49	성순영	500	80	이보현	1,000	111	최현지	2,000
19	김정숙	500	50	성준엽	1,000	81	이성문	1,200	112	최골롬바	300
20	김태경	600	51	손경진	300	82	이숙희	500	113	추승호	1,000
21	김진	1,000	52	손영렬	1,000	83	이순분	500	114	토레스 은식	2,000
22	나채국	1,000	53	손영수	1,000	84	이용문	2,000	115	하건철	1,000
23	나한복	1,000	54	손종철	3,000	85	이용범 (신부님)	3,000	116	한상철	1,000
24	문형곤	100	55	손홍구	1,500	86	이재구	1,000	117	한크리스토퍼	1,000
25	민병집	2,400	56	신준호	1,200	87	이재서	1,000	118	허종	1,000
26	박규희	300	57	안을봉	1,000	88	이종권	1,500	119	황분숙	500
27	박기호	1,000	58	안청자	500	89	이준원	100	120	황태진	3,000
28	박덕화	500	59	안현정	1,500	90	이호용	1,000	121	익명 (4)	2,400
29	박동준	300	60	양영길	1,000	91	임문수	500	122	익명	20
30	박락준	2,000	61	염기선	3,000	92	임성주	1,000	123	익명	20
31	박병태	1,200	62	오경숙	3,000	93	임소라	100	124	미국신자 (78)	101,400

약정금액: \$272,611.43/\$300,000 (90.87%), 납부금액: \$249,994.43/\$300,000 (83.33%)

부활 제 4주일

2026년
4월 2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사도행전2,14-7.36-41

화답송 시편 23(22),1-3-7.3-4-5.6(© 1)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독서 베드로 1서 2,20-25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10,1-10

성가 입당 55 봉헌 221, 513 성체 496, 498 파견 129

-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원준 - 가족
 - 이종선(헤레나) - 최세레나&최미카엘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오화남 - 서현주(데레사)
 - 김종호(베드로) - 허정(아나스타사)
 - 김상기(요셉) - 김정희(레지나)
 - 이광선(베드로) - 아이아린
 - 김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김유리아나
 - 백경목(요셉) - 가족
 - 박노임 - 노스브런스워
 - 홍갑분 - 가족
 - 이은레(데레사) - 노스브런스워

-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황혜선(루시아) - 가족
 - 김삼식(베드로) - 노스브런스워, 배미리암 김순옥(울리아) 배미리암
 - 홍스텔라 - 배미리암
 - 고명진(요안나) 고병준(John) 임지연(스텔라) 임지우 - 서현주(데레사)
 - 김인자(로마나) 김영필(안토니오) 임영자(안나) 의 건강을 위하여 - 노스브런스워
 - 임분수(마르꼬) 가정 - 가족
 - Jennifer Jones - 주일학교
 - 김태경(카타리나) - 이서형(요안나)

-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918 (117명)
 - 교무금.....\$1,250
 - 박병태(4~5) 김영숙(3~4) 이재서(4~6)
 - 김태경(1~6) 최현지(1~4)

- ★ **성모의 날(5월10일 주일)**에는 미사중에 꽃봉헌(단체/개인), 화관증정, 성모님께 편지, 그리고 묵상글로 봉헌 드립니다.

- ★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꾸리아 주관으로 미사 전 11:00 부터 묵주기도와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 5/3 일: 세계 평화를 위하여
 - 5/10일: 교황님과 모든 사제,부제들을 위하여
 - 5/17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 5/24일: 모든 아픈이들을 위하여
 - 5/31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 ★ **< 구역회 style로 하는 성서 공부 > 최승웅(미카엘) 부제와 함께 같이 하는 성서반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30분에 있습니다. (문의 : Dr.Choi (908)812-0232)**

-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꽂초를 버리지 마세요. (경당 옆 흡연 금지)

-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 **2차헌금 (4/26) Catholic Relief Service(카톨릭구호봉사기구)**

- ★ **빵과 포도주 봉헌**
 - 4/26 김태경 김정연 5/3 장종현 장한레
 - 5/10 백상헌 백용숙 5/17 최영욱 진윤식
 - 5/24 유병기 유용희 5/31 박정화 박덕화

- ★ **빵과 포도주 봉헌 및 친교 봉사 구역별 일정**
 - 5/17 썸머셋 6/21 에디슨 7/19 올드브릿지
 - 8/16 이스트브런스워 9/20 피스브릿지 10/18 노스브런스워
 - 11/15 럽거스 12/20 먼로 1/17 노스에디슨

- ★ **2026 Bishop's Annual Appeal**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6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본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 ★ **올해 부활 포장마차에서 Iris ID systems 1300불 포함 총 3004불의 수익금을 성전보수기금으로 기부해주셨습니다. 요셉회 대건회 야고보회 그리고 모든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몇년전 성당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에 큰 도움을 주신 고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울리아나) 부부를 기념하는 식수행사가 4/12 성모동상 왼쪽에서 신부님의 축성 으로 거행 되었습니다**

- ★ **동포 굴지회사 "카우보이 월드" 의 부사장 Daniel Lee 께서 세정제 240통을 부활절을 기념하며 기증해 주셨습니다.**

- ★ **< 연령회 연도 > 5월에 기일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오늘 미사 전후에 성당 입구에 신청해 주시면, 5월2일(토) 오후 2시 친교실에서 연령회 회원들이 정성껏 연도를 바칩니다. 가족들의 참여도 환영 합니다.**

- ★ **2026 에디슨 성당 친선 탁구대회 (주일학교 주관)**
일시/장소: 4월 26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참가비 \$5)
음료 판매와 간단한 스낵 제공되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이스트 브런스워 구역회**
일시/장소: 4월 26일(주일) 오후 4시 / 김순옥(울리아) 자매님댁

- ★ **써머셋 구역회**
일시/장소: 4월 26일(주일) 미사 후 / 루이지스 피자

- ★ **노스 에디슨 구역회**
일시/장소: 5월 3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 ★ **노스 브런스워 구역회**
일시/장소: 5월 17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회의실)

- ★ **<성인 견진성사 예식>**
 - 시간: 5월 31일(주일) 미사 중 성인 견진성사
 - 견진대상: 세례성사 받고 1년이 경과한 성인
 - 견진신청: 4월 26일 까지 신청서 성당입구에 제출
 - 필수사항: 주일 미사 5회 참여, 고백성사, 견진교육 참석
 - 견진교육: 5월 2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제 1독서** 사도행전2,14 ㄱ.36-41
오순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꺾릴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베드로 1서2,20ㄴ-25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요한10,1-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새로운 주교님을 모시기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원한 대사제이시며,
착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메타천 지역 교회에 내려주신,
수많은 은총에 감사하나이다.
저희의 제5대 교구장,
제임스 주교님을 보내주시어,
그의 여러 은사를 통해,
백성들을 보살피게 하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 메타천 지역 교회를 위한,
새로운 주교 선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교황 레오 14세 성하께,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시고,
다음 주교님을 선발하시는 과정 중에,
현명한 조언자들이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로 오실 주교님이,
신성한 스승이신 당신을 더욱 닮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의 다음 주교님이,
당신과 당신의 교회를 향해,
불타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분이 지혜와 충실함,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중부 뉴저지 전역에,
신앙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어머니이자 저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새로운 주교님과, 그에게 맡겨진 양 떼를,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소서.
당신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부활 삼종 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주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